

동서대 2022학년도 제31회 입학식 개최

새내기 2,027명 “배움과 수련에 힘쓰겠다” 입학 선서



▶동서대 제31회 입학식

2022학년도 2월 25일 제31회 입학식이 300명의 오프라인 참석자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석자 1,500여 명과 함께 소향아트홀에서 거행됐다.

우리 대학 출신 임현정 아나운서의 세련된 진행으로 시작된 올해 입학식에서는 비대면 소통을 위해 미리 제작된 영상물과 실시간 현장 중계,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연출을 선보였다.

특히 뉴욕에서 근무 중인 김유라 졸업생은 잠시 귀국한 사이 입학식에 참석하게 돼 소향아트홀에서 직접 신입생들과 마주하고 우리 대학의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 취업에 성공하게 된 본인의 스토리를 소개했다. 행사 중간중간 추첨을 통해 에어팟, 아이패드의 경품 이벤트가

진행돼 깜짝 선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신입생에게 안겨주는 등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갔다. 신입생 2,027명은 이날 정식 입학허가를 받고 “학교의 제반 학적을 준수하며, 재학 중 배움과 수련에 힘쓰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선서했다. 총학생회에서도 신입생 대표 최지훈 학생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후배들의 입학에 축하했다.

장재국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우리 대학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신 학부모님과 친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입학식에서 여러분

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를 극복하고 캠퍼스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대학은 미국, 중국, 일본에 해외 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국제 교류가 주춤한 상태이지만 코로나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학 중에 반드시 해외로 나가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수많은 해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정운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라고 우리 대학을 소개했고 신입생들에게 아래의 세 가지 당부

를 했다. 첫째, 동서대학교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원대한 인생 목표를 세워라.

둘째, 허투허투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지니라.

셋째, 자신만의 고유한 달란트를 개발하라. 장재국 총장은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2학년도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주신 학부모, 친지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조만간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직접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동서대학교 국제학술컨퍼런스 개최!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의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의 미래 전망

우리 대학의 4단계 BK 미래 영상 콘텐츠 혁신 융합 교육연구단과 우리 대학의 4단계 BK 서비스 디자인 기반의 사회혁신 교육연구단은 XCCT Global, 일반대학원 영상 콘텐츠학과와 함께 ‘The Future Prospect of Digital Contents and Platform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의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2차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소양 아트홀에서 양일간(1월 20일~21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실시간 원격 화상 시스템인 ZOOM과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격 실시간으로 송출했으며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본 행사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의 생태계 변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게임, 리얼 타임 엔진 등 미래 콘텐츠 관련 이슈를 소개, 공유, 토론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또한 XR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연구 실적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콘텐츠 생태계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미국, 중국, 한국 등 총 3개국에서 학계 및 산업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교류 그리고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에 일조하는 계기로 삼았다. 학술 컨퍼런스는 4단계 BK사업의 핵심 국제 학

술 활동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2회 행사에 이어 지속적으로 내실을 다져나가 브랜드 국제 학술 컨퍼런스로 위상을 확립할 예정이다. 개막 전 행사로서 XR 콘텐츠 제작의 의의와 현황, 전망에 대한 영상을 상영해 참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집중시켰다.

본 행사 1부에서는 <영화와 방송의 현재와 미래>이라는 주제로 2명의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중국 디지털콘텐츠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절강 전매학원 뉴스 앤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중국 인문 역사 다큐멘터리의 발전상, 복원 사법 대학 미디어학원 아오궈강 석좌교수가 ‘중국 디지털 사운드 제작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1부와 같이 초청 패널 3인과 주제 토론을 진행했다.

4부는 XR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주제로 한 세부 콘텐츠 제작 영역의 실무와 이슈를 강연하는 시간으로서 ‘Holoportation과 미래콘텐츠 산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5부에서는 행사 발제자 및 온라인 참여자들이 행사에서 다루어진 이슈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 공유하며 향후 해당 주제와 연구 주제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청년 해외진출 유공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해외취업 절대강자 동서대



▶청년 해외 진출 유공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우리 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0년도 해외 취업 연수사업 K-Move 스텝 운영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에 선정되어 2017~2020년 4년 연속 A등급에 유지된 것이다.

이번 평가에는 2020년 해외 취업 연수사업에 참여한 총 82개 운영 기관 및 183개 연수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0년도 해외 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한 82개 기관 중 17개의 기관만이 A등급을 받았다.

우리 대학은 2004년부터 18년 동안 해외 취업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여 개 국가로 1500여 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그리고

전국 대학 중 최초로 K-Move 스텝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K-Move 스텝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12월 23일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청년 해외 진출(K-Move) 유공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K-Move 스텝 사업은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연수사업으로, 정부로부터 교육 및 운영 과정을 위탁받아 실시되는 해외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해외 40여 개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대학은 독자적인 해외 취업 로드맵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교육부 장관상, 2014년 부산시장상,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 2016년에는 청년 해외 진출 분야 국무총리 상 수상,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해외취업분야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곽준식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우리대학은 진로교육, 국내외 취·창업교육 및 청년고용 정책 홍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대학일자

리센터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나라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 해외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저학년부터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취업 로드맵을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 해외 취업을 시키고 있다.

송강영 학생 취업지원처장은 “우리 대학 해외 취업의 역사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해외 취업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부터 해외 취업에 무한한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외 취업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년 동안 단 한 해도 쉽게 지나온 날이 없었다. 모든 날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마음껏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대학 K-Move 스텝은 미국, 일본, 베트남취업의 연수과정이고, 4학년졸업예정자들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해외취업의 장점은 근무환경이 좋다. 수직관계가 별로 없이 높은 직무만족도로 자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향상된다. 해외에서 취업함으로써 글로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 및 복지가 좋다. 임금과 복지가 현재 기업들 보다 해외기업들이 훨씬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학생이라면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일 것이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MOU 체결!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학 업무협약



▶곽준식 학장과 국제신문 배재한 사장, 동백마당(주) 조중호 대표

2021년 12월 13일 우리 대학 규칼리지와 국제신문, 동백마당(주)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학계, 언론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시로부터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대학의 LINC사업단과 ‘부산 공유기업-대학 협력기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MOU) 체결식은 우리 학교 규칼리지 곽준식 학장과 국제신문 배재한 사장, 동백마당(주) 조중호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학의 공동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된 기간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업무 제휴,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홍보 지원, 각 기관의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지원) 및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신문에서는 자체 홍보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및 비데이터를 제공, 우리 대학 규칼리지는 대학생들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업무를 지원하며 동백마당에서는 플랫폼(전자상거래 등) 제공 및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울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중한 마트’를 2022년 1월 14일 오픈해 첫 번째 상품으로 부산시어인 ‘고등어’를 판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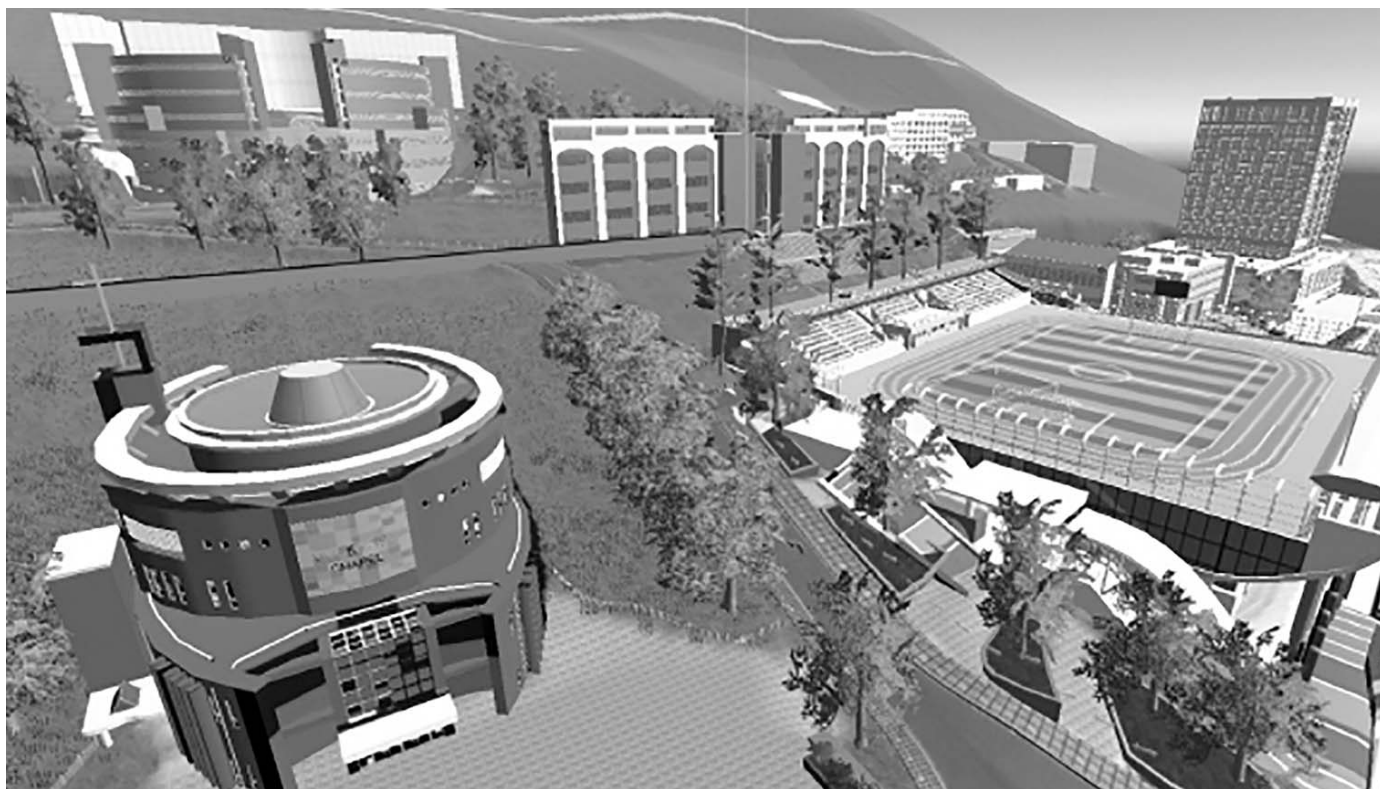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사령

- 편집국장 - 조수연 (광고홍보학과·4)
- 정기자 - 김규민 (광고홍보학과·2)
최혜미 (글로벌경영학부·2)

메타버스 플랫폼 DSUMetaverse 구축

차별적인 메타버스 활동 추진 목표



▶ DSUMetaverse 일부 모습

이벤트성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했던 부산 지역 대학들이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강의, 컨설팅, 회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기업 수준의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5G의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부경대, 부산외대에 이어 우리 대학 역시 지난해 자체 구축팀을 구성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DSUMetaverse'를 구축 중이다. 500명 이상이 동시 참여하는 행사, 실시간 전시 기능에 더해 향후 영상 및 음성 채팅 기능과 세션 개설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차별적인 메타버스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메타버스 활동만으로도 학점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DSUMetaverse는 현재 서버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메타버스로 만나는 우리 대학의 모습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서진택 특성과 지원 센터장은 "이제껏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페토(Zepeto), 로블록스(Roblox), 이프랜드(Ifland), 게더타운(Gather Town), 스페이셜(Spatial) 등의 상용 플랫폼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메타버스 캠퍼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블렌디드 수업의 상용화와 더불어 각 대학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서비스 제공, 집체된 학교 분위기 활성화 등을 위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비대면·온라인 추세 확산에 발맞춰 작년부터 꾸준히 메타버스·인공지능과 관련한 활동을 추진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21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혁신 인재 양성사업' 플랫폼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SW중심대학사업단과 AI공학, 빅데이터, AI 콘텐츠 융합 연계 전공,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방송영상학과, 뮤지컬학과의 융합 교육을 통해 'AI 기술 기반 비주얼 휴먼 활용 메타버스 실감 콘서트 프로젝트'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우리 대학 소양아트홀에서 AI아이돌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 사람을 3차원 스캔해 형상을 본뜨고 가상의 캐릭터를 만든 것이다. AI아이돌의 공연 모습은 무대 앞부분의 홀로그램대에 투영됐고, 막의 앞뒤에서 우리 대학 뮤지컬과 학생들이 춤을 취 클라보 무대를 연출했다. '2021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혁신 인재 양성사업' 플랫폼 기관에 선정된 뒤 첫 성과로 인공지능 가상 아이돌 메타버스 공연을 선보였다.

김규리 기자 Orlarb11@gmail.com

해킹 대회 3관왕의 기쁨!

정보보안학과 강동석 학생 인터뷰



▶ KOSPO 정보보안 경진대회 대상 수상식

정보보안학과 동석 학생이 국내 해킹 대회에서 3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첫 번째로 한국남부발전(주)과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서 주최한 '제2회 KOSPO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에서 대상(상금 400만 원)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은행과 금융보안원에서 주최한 모의 해킹 경진대회 'WooriCON'에 참가해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을 거뒀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제3회 TS 보안 허점을 찾아라!'에서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됐다.

앞서 말한 두 공모전은 BoB 팀을 재구성한 팀이다.

BoB 팀은 강동석 학생이 참가했던 '정보보안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적 보안 난제 해소'라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BoB, Best of Best)을 맡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가 주관하는 정보보안 최고의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그램이다.

강동석 학생은 20년에도 BoB에서 스마트 취약점 점검과 TRIDE 위협 모델링을 이용한 스마트팜 위협 분석 및 보안 요구 사항 연구 논문, 스마트 농업 보안 및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대학 정보보안학과는 해킹 및 방어 분야, 시스코 네트워크 아카데미 기반의 교육 과정, 시큐어 코딩 전문가 양성 과정, 사이버경찰청과 연계한 사이버경찰보안 연계 전공을 공동 개설해 복수 학위 과정을 이수할 기회 등을 제공해 학생들을 정보보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남권에서 특화된 정보보안 인력 양성 학교로 인지도가 높다.

노력에 답한 듯 꾸준한 대외 활동 및 공모전 참가로 3관왕을 차지하게 된 강동석 학생의 수상 소감이다.

"안녕하세요. 정보보안학과 4학년 재학 중이며 해킹팀 SaturnX에 속한 강동석입니다. 작년에 대외 활동으로 차세대 보안

리더 Best of the Best라는 프로그램에 1년 동안 참여해 보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해킹이라는 분야에 많이 늦게 입문한 편이라 복학 후에 전공 공부와 병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분야 특성상 독학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나, 대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밤새워 노력해 얻게 된 상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에도 기회가 된다면 졸업하기 전에 많은 대회에 참여하며 수상까지 노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신입생분께 학교 공부도 좋지만, 그뿐 아니라 여러 대외 활동을 필수적으로 참여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리 기자 Orlarb11@gmail.com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장관상 수상

부산디지털대 연합팀과 성공적인 쾌거 이뤄



▶ 동서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서지훈(왼쪽), 부산디지털대 컴퓨터공학과 이영진(오른쪽)

지난 12월,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서 주관한 '2021 소외 계층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리 대학과 부산디지털대 연합팀이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AI 교육 활성화와 함께 최근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사례는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AI 활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 대학과 부산디지털대의 연합팀은 '시각 장애인 위한 다채널 입력 센서를 이용한 CNN 기반의 점자 인식 시스템' 작품을 선보였다. 이는 후천적 시각 장애 등으로 점자를 모르는 시각 장애인도 간단한 터치만으로 점자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점자

인식 시스템이다.

이번 수상은 두 대학의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실제 창업까지 지원해 주는 '딥윤·기움·피움'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다. 향후 창업까지 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서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서지훈 씨는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수상작이 단순 아이디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실제 창업까지의 기대감을 표출했다.

정두은 산학협력단장은 "동서대와 부산디지털대는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창업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준비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창업 정규 교과목인 실전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인턴십과 여러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업 도전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AI의 급속한 발전에 맞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AI-SW 기초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11@gmail.com

큐칼리지 산학연 협약 체결

온라인 상생마트 '소중한 마트' 개시



▶ 큐칼리지(곽준식 학장), 국제신문, 동백미당(주)

지난해 12월 13일, 우리 대학 큐칼리지(Q College)와 국제신문, 동백미당(주)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학계, 인연계(이하 산학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은 우리 대학 큐칼리지 객준식 학장과 국제신문 배재환 사장, 동백미당(주) 조준호 대표 외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학연의 공동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된 기관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업무 제휴,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각 기관의 플랫폼 및 콘텐츠 지원 및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신문에서는 자체 홍보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우리 대학 큐칼리지는 콘텐츠 제작 및 업무를 지원하며, 동백미당(주)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의 플랫폼 제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중한 마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마트)를 1월 14일부터 오픈

했다. 부울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상생 마트다. 첫 번째 상품으로 부산시어인 고등어를 판매했으며, 매주 금요일 새로운 품목을 론칭해 소개하고 있다.

국제신문은 "국내 최초로 산학연 협업을 마련한 소중한 마트를 거점으로 지역 문화와 기업인의 경영 철학을 함께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소중한 마트는 우리 대학과 국제신문, 동백미당 홈페이지는 물론,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방문할 수 있다. 또 SNS를 통해 소중한 마트 서포터즈에서 제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큐칼리지만 우리 대학의 창의융합 대학이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공의 내면에 감춰진 끼와 열정을 살려 부캐릭터를 갖게 하는 '세상에 없는 대학'의 대학, 부캐 양성 도전 스텝'을 목표로 창업, 창작,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아시아, 미국에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공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11@gmail.com

신문사 편집국장 이·취임식

신문사 구성원 모습



▶ 신문사 구성원 모습

지난 1월 27일 오전 12시 우리 대학 신문사(산학협력관 6층)에서 동서대학교 신문사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경영학과 김경은 전 국장이 이임하고 광고홍보학과 조수연 국장이 취임했다.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지도 교수 축사 ▲국장 이임사 ▲차기 국장 취임사 ▲국장 전달식 ▲감사패 전달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최해미 기자가 맡았다.

모든 구성원이 모여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또 새로 취임하는 국장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좋은 신문사를 만들기 위한 각오를 주고 받았다.

새로 취임한 조수연 편집국장은 차기 국장 취임사에서 "수습기에서 벗어나 정가자로 승진과 동시에 부국장이 돼 잡할 수 있을게 고민도 많았지만, 경은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서 열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로 나아가는 대학신문인 만큼 청춘을 담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직은 국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고 흔쾌히 말씀해 주신 경은 국장님과, 항상 기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오중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기자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오늘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신문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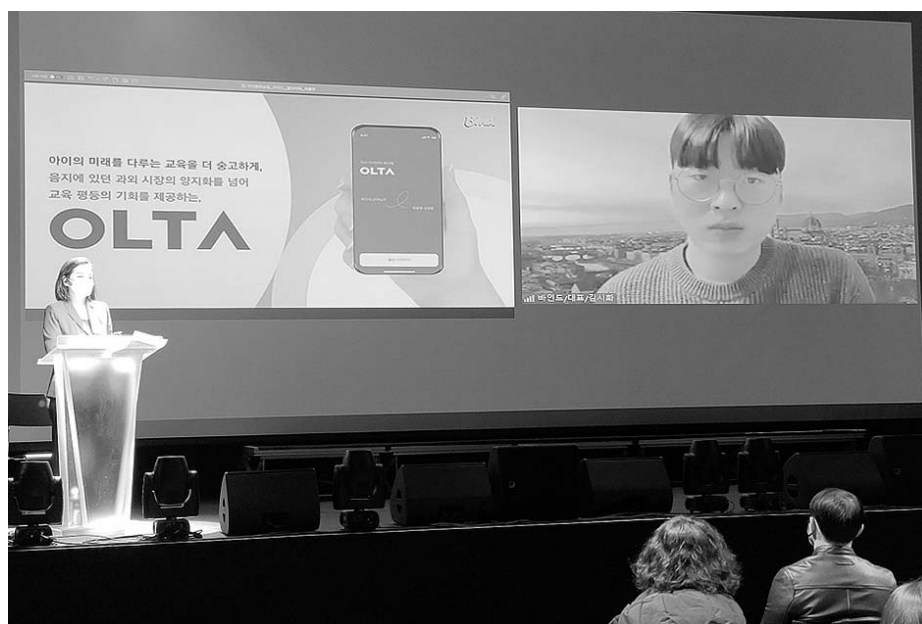
김규리 기자 Orlarb11@gmail.com

창업의 시작은 우리 대학이 맡는다

‘블랜디드 투자 DEMO DAY’ 개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Final Demoday 현장



우리 대학의 장재국 총장과 사단법인 단디벤처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Final Demoday'가 지난 달 16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시간 동안 부산의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초기창업 기업에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1개의 유망 스타트업과 콜리지 코너인베스트먼트 등 창업투자회사와 전문투자자가 심사단으로 참석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원제한으로 감액 예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IP Pitching 기업 10개사와 AC/VC 전문투자자 외에 대학생 및 예비/초기 창업자 등이 참여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 기관에서도 참석해 창업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초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투자유치교육을 거쳐 최종 11개 스타트업이 파이널 무대에 올랐다.

심사는 10분으로, 5분의 IR발표와 각 투자자의 심사위원단의 심사 5분으로 구성됐다.

열띤 발표를 마친 TOP11 기업 중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기업은 후속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실제 투자 연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인 '소셜패밀리'의 최시준 대표와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노아에스비엔에이'의 김사무엘 대표는 "초기창업 기업들은 대체로 투자유치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초기창업 기업일수록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며 스타트업이 투자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함을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사단법인 단디벤처포럼의 권영철 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지원해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행사의 높은 호응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도운 창업지원단장은 "투자유치는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아줄과 같다. 우리 대학은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기술주주회사 설립을 인가받았다. 앞으로 자체 투자펀드 활용과 지역의 창업투자회사와 협업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투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초기창업패키지 ▲실현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생애최초창업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 창업진흥원에서는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말 24일 오후 4시까지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을 선발 광고를 통해 2022년 수혜기업들을 선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2월 25일에서 2022년 2월 24일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다. 또한, 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700개사 내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버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 홈 등 그린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을 가진 기업 600개사와 ▲스마트 시티 ▲스마트제조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등 그린 관련 창업아이템을 가진 그린 분야 기업 100개사다.

지원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우리 대학은 16개의 일반기업과 2개의 그린기업을 지원하며 사업화 자금은 평균 7천만 원이다.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3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니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시에는 기업인증증서가 신청일 때 따라 사전에 공동인증서 발급하거나 SCI기업실명인증 등 록을 완료해야 한다. SCI기업실명인증은 등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 학부장 인터뷰 - 건축공학 학과장 이동운 교수

최고의 건축 엔지니어를 양성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동운입니다.

시대에요 건축 분야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축공학이란 직업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건축공학과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이 많은데 건축공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우리 건축공학과는 2020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에서 건축(시공) 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됐습니다. 그중 고밀도 경험학습 지원을 위한 교내현장교육시스템(In-School Field System, IFS)의 도입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현장 연결을 통한 해외 실무자와 학생 간 실시간 교육 및 상호작용 극대화, 산학협력 친화형 교과목 운영, 프로젝트 기반 문제 해결 교육, 지식 재산권 교육 시행이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은 주로 건축의 기술(Technure)에 관련된 분야로서 구조, 재료, 시공, 관리, 설비, 환경 등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구체화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IFS와 함께 ALLSUN(All Support for UNiversity) 산학 트랙을 도입하여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 심화 모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비교과로 구성된 융·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Q. 이 학과의 진로와 전망은 어떤가요?

A. 건축공학과는 현장에서 수요가 많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최상위에 랭크되는 학과입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부작용으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타 전공보다 높은 연봉이 보장됩니다. 현장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건설 기술자 등급이 올라서 나이가 들어 노후에도 감리단장 같은 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가 부동산에서 인테리어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설 현장은 사무직보다 거칠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많은 것도 건축입니다.

우리 학과는 학생들의 대기업 진출을 위해 현대건설(주) 기술교육원과 취업 연계 과정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매년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건설 전문 인력 양성 트랙'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MOU를 통해 20년에는 5명, 21년에는 8명이 현대건설에 취업했으며, 22년에는 13명이 취업 예정입니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미래일자리 보고서에 보면 향후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을 보면 많은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Q. 건축공학과 학생들께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A.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축공학과 학생들이라면 어려운 길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란 일을 업으로 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로서의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므로 그 일이 고집지연점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태연 수습기자

창업경진대회 '실전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창업장학금 총 3,000만 원 규모, 교내 총 81개 팀 중 11개 팀 선발



▶금상 2팀, 은상 2팀, 동상 2팀, 장려상 2팀, 특별상 2팀



▶대상 수상자인 스타일매치팀 대표 서인회 학생

우리 대학은 2022년 1월 18일 '실전창업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올해로 7회째인 실전창업경진대회는 본교 재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역량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교내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린 대회다.

실전창업제품 프로젝트는 약 6개월간 창업캠프 및 스타트업 특강, 토크 1대1 멘토링, 시제품제작에 이어 마지막으로 모의 클라우드 펀딩까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 시장반응까지 6개월간 현실 창업의 축소판으로 모두 체험할 수 있었다.

총상금 3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교내 81개 창업동아리 중 16개 팀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참여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우승자를 가렸고 대상 부문은 '셋넷 기술'을 활용한 보유웃 코디 컨설팅 플랫폼의 아이디어로 디자인학부 '스타일 매치' 팀의 서인회 학생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금상 2팀, 은상 2

팀, 동상 2팀, 장려상 2팀, 특별상 2팀 총 11팀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인 스타일 매치팀 대표 서인회 학생은 "이번 실전창업경진대회 수상을 통해 창업에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상금으로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여 시장에 진출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던 지난 1년 동안 대학이 마련한 창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긴 여정을 달려왔다.

정도운 창업지원단장은 "실전창업경진대회는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창업의 등용문이다. 창업지원단에선 실전 창업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실전 창업교육의 효과로 매년 학생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인프라를 갖춘 우리 학교 창업지원단은 실전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

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장재국 총장은 "우리 대학은 혁신적 창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각'을 넘어 '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했고, 우리 대학만의 고유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가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우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 전후로 매출률 700%, 고용 2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은 특화된 'LEGO 초기창업지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초기창업 맞춤형 지원, All-Set 컨설팅, LEGO 창업 아카데미 등의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유치했다. 또한 교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및 기술집약형 창업기지, 언택트 화상회의 플랫폼 등으로 구축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해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Easy Start-Up'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업문화 활성화와 함께 ▲실전창업프로젝트 ▲LEGO창업 아카데미 ▲Biz-Make창업동아리 ▲PAS-TEL 창업동아리 ▲AI-SW 창업동아리 및 해커톤경진대회 ▲실현실창업페스티벌 등 다양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1개 창업동아리에서 약 600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실현실창업선도대학, 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 생애최초창업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10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사업을 유치하여 대학별 창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최혜미 기자
qphslzk1542@gmail.com

서울대 의과대학원 합격!

미래를 연구하는 바이오제약과 흥현택 학생



▶바이오제약과 흥현택 학생



▶연구실 핵심 모습

바이오제약공학과 흥현택 학생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과학과에 합격했다. 현재 정식으로 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대학원생이 돼 공부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고승준 교수가 운영하는 영증성 대장암 연구소에 인턴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6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하다가 합격하게 됐다.

4학년이 될 때까지도 대학원 진학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흥현택 학생은 화장품신소재학과(구 바이오제약공학과)의 김동원 교수에게 대학원 진학 제의를 받고 관심이 생겨 김동원 교수가 운영하는 Exosome Regeneration Research lab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곳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실에 지원할 기회가 찾아오자 이를 놓치지 않았다.

흥현택 학생은 크론병(염증성 대장염 질환 중 일한 난치성 질환)이라는 본인인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연구소에 지원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세로 소기관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특정 유전자가 크론병과 관련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lab에서 모집하는 인턴 공고를 찾아보다가 현재 공부하

고 있는 연구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흥현택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나름의 스펙과 경험을 착실히 쌓은 것이 연구소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1학년의 동서 글로벌 프로그램과 2학년의 동서 언어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 필요한 협력 방법이나 의견 조율 방법의 기본을 갖추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언어 소사이어티에서의 미국 Fort hays university로의 한 학기 간의 유학 생활 역시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4년간 대학 생활을 하며 이러한 교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 싶은 의식이 항상 있었으나, 연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차근차근 쌓아온 결과와 지금의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항상 자신을 믿고 완주해 한 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라며, "외부에서 쌓을 수 있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후배들에게 당부 인사를 남겼다.

김규리 기자
Orlarbfl1@gmail.com

책 속의 풍경 - 공간의 미래

똑같은 공간, 다른 삶



• 책 제목: 공간의 미래
• 책 저자: 유현준
• 출판사: 을유문화사

도시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에서 이어진 공간의 미래는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전 작품인 <도시란 무엇으로 사는가>는 도시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도시를 이야기 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는 학교건축의 문제점, 건물이 가지는 권력의 높이를 이야기하며 유현준 건축가만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도시 속 공간의 모습을 풀어 설명한다. 유현준 건축가는 현재 도시의 모습과 그 도시 속 건축물들의 문제점,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의 결합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의 변화를 이번 작품에서 이야기한다.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85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의 평면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세금의 기준이 달라진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면적은 85제곱미터로 유지하면서

더 넓은 실내를 갖는 집을 지어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방법은 '발코니 확장법'이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하고 공식적으로는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아파트를 만드는 편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집이 감당해야 하는 용량에서 1.5배 초과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에 과부하가 걸리니 사람도 불편해졌다. 이런 공간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발코니를 복원하고 발코니의 면적을 확장하고, 좁다란 발코니의 위치를 달리해 이태초 햇볕을 차단하는 문제를 해결 할 다면 새로운 아파트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종교의 위기와 기회
종교만큼 공간과 권력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분야가 없다. 보이지 않는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 보이는 공간에 모여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종교인의 대한 권위를 높이고 공동체의 의식을 통해 소속감을 심어 준다. 하지만 코로나19같은 전염병은 종교의 권력을 낮췄다.

출근은 계속할 것인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회사가 줄고 사무실 공간에 변화가 생겼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교통량, 학교, 오피스 공간의 수요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는 도시 공간을 변형시킬 것이다.

전염병은 도시를 해체시킬까
인류 문명과 도시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없었던 시기가 없다. 가끔은 심각한 전염병으로 도시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도시로 모인다.

상업시설의 위기와 진화
온라인 상업이 활성화 되면서 오프라인 상업 시설의 돌파구는 '물건을 사는 것 이외의 경험을 제공해 주자'였다. 그것은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오프라인 공간의 체형이었다. 백화점을 뛰어 넘는 대형 쇼핑몰들은 사람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사치스러운 공간은 새로운 공간의 체형과 함께 사람 구경을 시켜주지만 코로나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백화점의 경우 VIP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등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간의 미래
환경 된 땅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그 아파트들 속에서도 그에 대한 가치(집값)만이 아니라 외형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부산의 롯데 아파트와 대구의 롯데 아파트의 모습은 차이가 있는가? 별로 차이가 없다. 위로 솟은 아파트에 기업의 브랜드 마크가 박혀있는 모습에서 차이점은 느껴지지 않는다.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일인 것 같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공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길 위에 다니는 철도는 땅 아래로 가서 지하철로 변하고, 거리에 높게 솟은 전봇대는 땅 아래로 내려가며, 휴대폰 자판기는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갔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게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다.

주태연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케빈에 대하여



• 영화 제목: 케빈에 대하여
• 영화 감독: 린 램지

<케빈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25일에 개봉된 영화로, <We Need to Talk About Kevin>이라는 유령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는 충격적인 소재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온 영화다. 원작에서는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총기 소지, 범죄 등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케빈의 성장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케빈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으며 성장하는 과정에 일어난 가족 내의 경험으로 인한 살해까지 상세히 보여준다. 사이코패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영화에서는 오로지 케빈과 엄마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케빈의 엄마인 에바는 결혼 전까지 자유로운 인물이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모성애의 부재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여행업체의 운영자이기도 한 케빈의 엄마 에바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었다. 토마토 축제에서 온몸을 내던져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누워있고, 빗속을 뛰어가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여행지에서 만난 트럭 운전사 프랭클린과 달콤한 사랑에 빠져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곧바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다. 에바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임신이 아니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케빈이 반갑지 않게 혼란스러웠다. 배 속에 있던 케빈은 그저 무거운 짐이었고, 케빈의 울음소리보다 공사 현장의 소음을 더 편하게 느꼈다.

자유를 포기하고 얻은 아들 케빈은 유독 에바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에게서 행복한 미소보다는 지친 표정을 더 많이 보았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 내에서 에바의 모습이 그렇다. 에바는 자신의 가족 중 유독 자신에게만 마음을 열지 않는 케빈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지만, 그럴수록 케빈은 더욱 교묘하게 에바에게 고통을 준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울기만 하던 케빈은 아빠 품에서는 안전하지만 하다. 케빈이 살 정도 컸을 무렵 물건을 집어 던지며 사고만 치는 케빈을 보던 에바는 자유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한다. 그러던 중 에바는 둘째를 낳게 된다. 케빈의 여동생 실리아가 에바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자 케빈의 성격이 더 뼈살어진다. 실리아가 키우던 기니피그를 몰래 죽이거나, 실리아의 한쪽 눈을 멀게 하는 범행으로 발전했다. 에바는 단

번에 케빈의 짓이러는 것을 직감한다. 케빈에 대한 경계심과 실리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에바의 생각에 프랭클린은 말도 안 된다며 케빈을 감싸고 부부 사이는 악화된다. 그리고 케빈의 16살 생일 직전, 자신의 아버지인 프랭클린과 여동생 실리아를 활로 쏘아 죽인 뒤, 학교 체육관의 문을 자전거 자물쇠로 잠그고 학교 친구들을 살해한 뒤 체포된다. 이때 케빈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껌을 씹으며 걸어 나와 순순히 잡히고 열은 미소까지 짓는다. 재판이 벌어지고 에바는 순식간에 잘나가는 여행작가에서 살인자의 어머니가 됐다. 어쩔게든 일자리를 구해 중소 여행사의 경리로 취직하지만, 유족에게 테러와 손저검을 당하는 등 고통스러운 생활이 끊이지 않는다. 그로부터 2년 후 에바는 18세가 가까워져 소년교도소에서 성인교도소로 이송될 케빈을 만나기 위해 면회를 갔다. 에바는 케빈에게 처음으로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였다. 케빈은 평소처럼 반항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에바는 아무 말 없이 케빈을 안아준다. 갑작스러운 포옹이었지만 케빈은 가만히 있다. 이를 통해 케빈이 그동안 에바에게 보였던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케빈의 범죄와 그동안의 행동은 자신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엄마를 향한 분노였을까. 아니면 엄마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검은 호랑이의 해, 고양이가 되지 않는 법! 올해 주목해야 할 트렌드

2022년 범띠해 10대 트렌드 'TIGER OR CAT'		
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나노사회	파편화된 개인들 분열 가속화
Incoming! Money Rush	머니러시	투잡과 투자로 돈 벌러 나선다
Gotcha Power	득템력	돈만으로 못 사는 최소 상품들 인기
Escaping the Concrete Jungle	러스틱 라이프	도시 속에서 시골의 여유를
Reveler's in Health	헬스플레저	젊을 때부터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O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ration	엑스틴 이즈 백	올해의 주인공은 X세대
Routinize Yourself	바른생활 루틴이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자기관리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실재감테크	실으로 들어온 메타버스
Actualizing Consumer Power	라이크 커머스	페이스북 인스타 보고 쇼핑하는 시대
Tell Me Your Narrative	내러티브 자본	확고한 자기 스토리가 기업 개인 경쟁력

▶ 2022년 10대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서 올해의 트렌드를 담은 10가지 키워드를 선보였다. 트렌드 코리아란,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망을 담은 책으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발간한다. 트렌드는 지속력과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매년 이루어지는 마케팅, 제품, 서비스 등이 변화한다. 트렌드를 알아야 세상이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트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즘 공동체는 개인으로, 작은 무리들도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돼 서로 이름조차 모르게 됐다. 소비 트렌드 예측 전문가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생각한 2022년의 트렌드 키워드인 '나노 사회'다. '트렌드 코리아 2022' 출간 기념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나노사회가 된다는 건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의미'라며 "이는 다른 모든 트렌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폰, 알고리즘, 기술만능주의로 인해 개인은 더욱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나노사회로의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키워드는 ▲나노사회 ▲머니러시 ▲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스플레저 ▲엑스틴 이즈 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재감테크 ▲라이크커머스 ▲내러티브 자본이다. 이를 'TIGER OR CAT'이라는 줄임말로 요약했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범띠해에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수도, 아니면 고양이로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세상을 이끌지 10개 키워드 중 4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Incoming! Money Rush '머니러시'
올해는 더 많은 수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머니러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세대에 관계없이 월급 외의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N잡러', '주식', '가상화폐' 등이 있다. 배민커넥트의 '요즘 일상 캠페인'에서 머니러시를 느낄 수 있다. '배민커넥트'는 '배달의민족'의 배달 업무를 도보, 자전거, 자동차 등으로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대중적인 투잡/아르바이트로 자리 잡고, 많은 지원자 확보를 위해 20~30대 사용자들 대상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아르바이트, 투잡=배민커넥트'라는 캠페인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머니러시는 양면성을 띤다. 금전만을 쫓는 과도한 속도화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개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넓히는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바라봐함을 명심하자.

Gotcha Power '득템력'
득템력이란,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지칭하는 단어다. 과거에는 고가 브랜드 제품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득템력'이 중요하다.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 늘었다는 것을 넘어 상품의 희소성 개념이 바뀌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시'가 고가 상품의 구매에서 희소한 아이템이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득템력은 나이를 불문한다. 한정판 신발이 MZ세대 소비자의 득템력 대표 주자라면, 중장년층 소비자에게는 장인정신 기반의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고의 핸드페인팅 장인이 자기 위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낸 고급 식기와 독특한 재료로 만든 수제 만년필 등 자녀에게 대물림할수록 희소성과 프리미엄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Escaping the Concrete Jungle '러스틱 라이프'
'촌'스러움이 '힐'해지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란, 낯익은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원격학습의 기회가 늘면서 비싸고 복잡한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도시를 떠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를 정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는 '러스틱 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나만의 작은 숲, 나를 위한 힐링 공간을 찾아 나선 현대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시골은 비밀상과 낭만의 공간, 나만의 특별한 아지트로 도시와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시골살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다. 시골 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은 도시와 단절되는 귀촌이 아닌, 4~5일은 도시에서 머물다 2~3일은 시골을 찾은 삶을 실천하며 도시의 일상을 조금 덜어내고 소박한 '촌'스러움을 삶에 더하는 새로운 지향의 의미하니 주의하자.

Revelers in Health '헬스플레저'
'헬스플레저'란, 건강(health) 관리도 즐거워야(pleasure) 한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의 건강관리는 중장년층의 이슈였다면, 이제는 젊은층도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 머니러시를 이루기 위해서 몸 관리는 필수로 꼽힌다. 헬스플레저가 더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는 신조어가 있다. 바로 '얼리케어 신드롬'이다. 얼리케어 신드롬이란, 최근 2030세대들이 기존 장년층의 건강 고민이었던 다양한 질병적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모습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신조어로, 탈모 관리와 피부 주름 관리가 있다. 2022년은 벌써 3월을 맞이했다. 대부분의 키워드들을 보면 몇 가지 상황이나 경험을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렌드는 항상 변화한다. 이미 또 다른 트렌드가 2023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세상을 이끌어갈지 기대해도 좋다. 자료출처 : 트렌드 코리아 2022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축제·공연 소식



크로스오버 그룹 '미라클라스' 콘서트
• 기간: 2022. 03. 12. (토)
•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위클리대식



제3회 대신더발레 무용발표회
• 기간: 2022. 03. 13. (일)
•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대신더발레 무용학원



단편소설집
• 기간: 2022. 03. 18. (금)~2022. 03. 19. (토)
•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부산문화회관



월드 단독 콘서트 - 부산
• 기간: 2022. 03. 19. (토)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전공인터



제18회 카페쇼
• 기간: 2022. 03. 24. (목)~03. 27. (일)
• 장소: 벡스코 제2전시장 2B홀
• 주최: 블루케이



2022 궁디팡팡 캣페스타
• 기간: 2022. 03. 25. (금)~03. 27. (일)
• 장소: 벡스코 제2전시장 1홀
• 주최: 캣페스타



제1회 한국이색반려동물박람회
• 기간: 2022. 03. 26. (토)~03. 27. (일)
• 장소: 벡스코 제2전시장 4A홀
• 주최: 한국이색반려동물박람회 조직위원회

새내기를 위한 새내기 생활백서

새로운 봄이 온다



▶ Welcome 2022

▷ 사진출처 - pixabay

추운 겨울부터 시작된 기나긴 터널을 지나니 어느새 새로운 봄이 다가왔다. 새로운 봄과 함께 온 신입생들은 고3 때 지나고 다녔던 불안을 무거운 옷과 함께 털어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지난 2년은 다시다난한 1년이였다. 여전히 2년째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겨울을 보낸 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피어난다. 모든 것이 처음인 새내기들을 위해 우리는 새내기들을 위해 학교생활에 도움 되는 내용을 전해주려고 한다.

시작은 수강 신청과 함께!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표다. 우리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같이 통제된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나만의 시간표를 만든다. 1학년 1학기 때는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도와주지만 2학기부터는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 시간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주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수업 듣기 전에 지쳐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수업과 수업 사이의 간격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정 요일을 비워둘 수 있는 요일을 만들면 좋지만, 특정 학과의 경우 전공 수업이 요일마다 있어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시간표를 만들 때는 꼭 수업과 수업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고 특정 요일에 너무 많은 수업을 몰아넣게 된다면 미래의 시험 기간 때 자신을 힘들게 할 것이다.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우리 대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 학과 생활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학과 선배나 동기들을 만나며 인맥을 넓혀가다 보면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봄을 알리는 벚꽃

▷ 사진출처 - pixabay

민석도서관을 이용하자!

우리 대학 꼭대기에 있는 민석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빌릴 수도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 음악 감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을 대출하기 힘든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릴 수 있다. 전자도서관 앱은 북큐브, 알라딘,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다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험 기간 때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옆에 있는 열람실을 이용하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할 장소를 찾는 학생들은 열람실과 민석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자!

나눌수록 줄어드는 어려움 학생생활상담센터

국제협력관(1번 건물) 1층에 있는 학생

생활상담센터는 요즘 MZ세대들이 열광하는 MBTI(성격유형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MMPPI(다면적인성검사), TCI(가질 및 성격검사), Holland(직업 탐색 검사) 마지막으로 U&I(학습 유형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이외에도 개인 상담(진로, 대인관계, 가족 문제 등)도 하고 있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을 원하면 상담할 수 있다. 힘든 일이 있는 학생은 꼭 학생생활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좋겠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기회

우리 대학은 글로벌 프로그램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한 학기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SAP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수업료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해주며, 항공료 지원(최대 160만 원)까지 해주어 학생들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SAP를 통해 해외를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때 꼭 지원하자! 성적이 낮은 학생도 리셋 전형이 있으니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가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

많은 학생이 학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끊임없이 하므로 학교 홈페이지 장학 도우미에서 조건을 잘 확인하고 그 조건에 맞춘다면 학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대외활동

대외활동은 새로운 경험을 쌓기 좋다. 최근 서포터즈의 경우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활발히 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자신이 SNS를 자주 한다면 서포터즈 활동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서포터즈는 자신의 분야와 맞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놓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

강의실 찾아가는 법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목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찾아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 수업 계획서에는 1234 또는 V0000으로 되어있다. 숫자로 되어있는 경우 숫자 네 개를 ABCD로 하면 A는 건물번호, B는 층수, CD는 강의실 번호로 되어있다. 앞이 영어로 된 건물의 경우 제일 앞에 오는 알파벳은 건물명이고, 뒤는 강의실 번호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V611이면 V는 글로벌빌딩을 뜻하며, 611은 6층에 있는 611호 강의실을 말한다.

버스 정류장 위치

스튜던트플라자, 민석도서관, 글로벌빌딩에 가는 버스는 다르다. 스튜던트플라자에 가는 버스는 냉정역 5번 출구에서 5-1, 5-2번을 타면 되고, 민석도서관 가는 버스는 냉정역 1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서 5, 5-1, 5-2를 타면 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빌딩 가는 버스는 주례역 1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서 2, 3, 3-1을 타고 가면 된다.

자유로움 속의 무게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로움이다. 대학교의 경우 앞에서 자신을 바로 잡아 줄 사람이 없다. 오롯이 자신의 결정으로 나가야 하는 대학 생활은 막막할 수 있지만, 주위 선배들과 지도교수님의 도움을 얻는다면 쉽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맺음 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잘 지낸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대학 생활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가 잘 헤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처음이란 게 있듯이 모두가 낯선 환경인 만큼 걱정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걱정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앞에 뛰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조금씩 따라가되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 나가는 속도로 가는 게 좋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사람의 속도를 따라 하다 보면 언젠가 길을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 조금 해치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주태연 수습기자

나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벼랑 끝 AMD를 살린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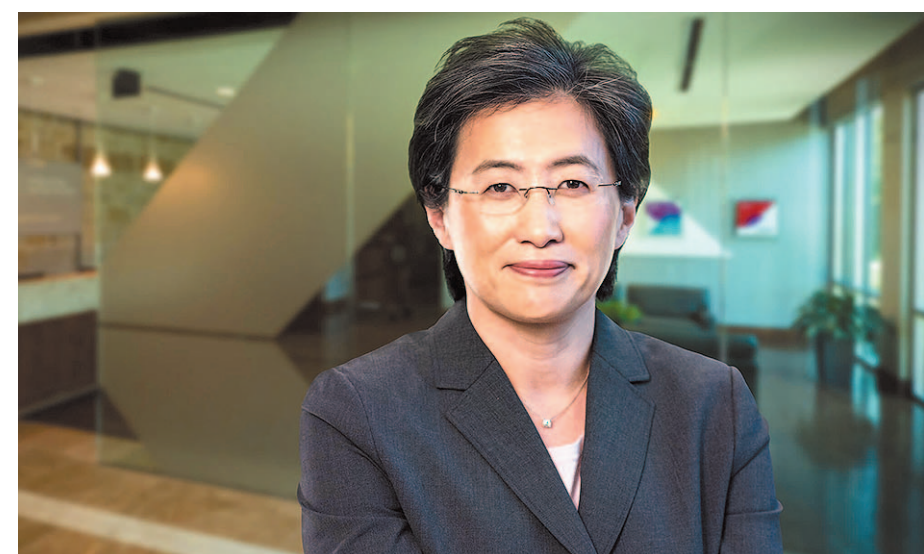
▶ 점진권을 상징하는 장미

▷ 사진출처 - pixabay



▶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

▷ 사진출처 - pixabay



▶ 2019년 CEO 연봉 1위

▷ 사진출처 - TECHSPOT

3월 8일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점진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여성의 날의 시작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결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 여건 개선과 점진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

1908년 3월 8일 미국 1만 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점진권을 뜻하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최악의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으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불기한 전 의류 노동자들의 시위는 결국 1910년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 창설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에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 빵과 장미를 나누주는 행사가 실시된다.

대한민국의 '여성의 날'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세계적인 여성 CEO 리사 수(Lisa Su)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 지위 향상을 이루게 된 역사적인 날이다.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회사이자, 인텔의 유일한 경쟁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여성 CEO이자 엔지니어인 리

사 수(Lisa Su)를 소개하고 싶다.

리사 수는 집 캠퍼와 함께 벼랑 끝에 있던 AMD를 부활시킨 인물이자, 인텔이 독점하던 컴퓨터 시장에서 인텔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성장시켰다. 이런 성공 스토리의 배경에는 리사 수의 강한 도전정신과 경영자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

엔지니어의 재능을 가졌던 리사 수는 MIT에 입학해 전공으로 전기공학을 선택했다. 컴퓨터 공학과 전기공학 중에서 전기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기공학에서 공부하던 리사 수는 반도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웨이퍼 제작 관련 분야 연구로 대학원을 들어갔고, 반도체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SOI 기술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을 졸업한 리사 수는 IT회사에 입사 후, 1년 만에 IBM으로 이직했으며, 수십 해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회사이자, 인텔의 유일한 경쟁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여성 CEO이자 엔지니어인 리

경영자 마인드를 익히며 기업 경영을 배우게 됐다. PC와 하드웨어 시장이 아닌 비디오 게임 시장에 도전한 리사 수는 소니, 도시바와 함께 차세대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플레이스테이션3와 X-BOX 360에 CPU를 탑재하며 비디오 게임 시장에 대모가 거듭났다.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을 거듭한 리사 수는 회사 전체를 지휘하는 경영자를 꿈꿔왔고, 프리스케일에 CTO 자리로 이직해 전체적인 연구 지휘업무를 하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프리스케일의 부사장 겸 총책임자로 승진했으며, 기업의 IPO 과정까지 완수하며 진정한 경영자의 자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멘토였던 니콜라스 도노프리오의 제안을 받아 AMD의 부사장으로 합류하게 됐다.

그 당시 AMD는 침몰하는 배였고, 핵심 인재들은 삼성, 엔비디아 등으로 줄줄이 도망치듯 이직했다. 리사 수는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리사 수는 이렇게 말했다. '잘나가는 기업은 쉬운 선택이지만 저에게는 매력 없었습니다. 어

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체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쉬운 길이 있어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 리사 수는 AMD에 입성했다.

리사 수는 암에 걸린 AMD를 소생하기 위해 인텔과 경쟁하던 PC 시장에서 비디오 게임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당시에 개발 중인 APUs가 비디오 게임기용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정확했다. 그렇게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또다시 성공을 얻은 리사 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10월 AMD CEO 자리를 얻게 됐다.

CEO 자리에 오른 리사 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른 사업을 뒤로하고 CPU 아키텍처를 개발했다.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PC, 모바일, 인공지능 등 모든 컴퓨팅 분야에 적용하는 큰 그림을 그렸고, 현재 시가총액 23조 규모로 성장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 여성의 날
유튜브 - 인텔과학 인물열전
주태연 수습기자



도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김유진(광고홍보학과·4)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3년이 흘러, 4학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 나에게 2022년은 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나의 진로를 정해야 하고, 학교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정리할 해다. 사실 나는 학교 생활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다. 동아리, 연구회, 해외연수, 학생회까지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해 보았다.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담지 않은 활동이 없기에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해야지' 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내가 생각하는 대학은 사회생활 시작이고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 경험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은 매우 즐거웠다.

나는 동아리와 연구회를 통해 타교 학생들과 만나 여러 경험을 나누고,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식견을 넓히고, '학회장'이 돼 교수님이나 학생들과 손발을 맞추며 학교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여러 시간을 보내고, 여러 인연을 만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할 거 같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 답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에게 가장 값진 경험은 자랑스러운 광고홍보학과 학회장을 맡았던 것이다. 내가 학회장에 처음 들어가 학년 대표

를 맡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학회장이 될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학년 대표의 자리에서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돕는 정도였다. 그 당시 모르는 게 있을 때 나를 찾는 학우들의 부름이 뿌듯했고, 나를 믿고 일을 맡겨 주시는 교수님의 심부름도 즐거웠다.

이렇게 학년 대표의 자리에서 학회를 위해 힘쓰다 보니 자연스레 학과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 우리 학과는 학년 당 인원이 40명 정도 되는 소수 과인데, 나는 이 점이 너무 좋았다. 같은 학년 동지들은 서로 모두의 이름을 알았고 지남 정도로 익숙했고, 선후배 관계도 좋았다. 뉴밀레니엄관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시골벽적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때 대왕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과제에 시달리고 밤을 새우며 함께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우리 광고홍보학과만의 따뜻함이 좋았다. 나는 학생회의 일원으로써 학우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학과 학생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더 많이 챙겨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학회장을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회장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섰다. 비로소 내가 학회장 자리에 올랐을 때 함께 기뻐해 주던 학우들과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교수님을 보며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똑 부러지게 일했구나 싶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3학년에 올라와 수업 과제의 강도는 높아졌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학회를 끌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나에게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학과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자리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큰 부담감은 안 하던 실수까지 하게 만들었다.

내 의지로 시작한 일이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 해보고자 하는 일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들 수 있다. 나도 내가 한 활동이 100% 완벽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는 했고, 마음과 다르게 진행된 일에 속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일든 도전해 보고 소중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그 시간 속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도, 나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내 의지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고 좀 더 단단한 나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땐 분명히 좋은 인연이 나를 구해낼 것이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고, 그 순간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나'다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진부한 말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참 좋아한다. 끝이 속담과 가장 잘 어울릴 3월이다. 2021년에 자신이 이룬 게 하나 없더라도 과거에 얽매어 있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길 바란다.

죽비소리

나는 언제나 새롭게 출발한다

이도현(광고홍보학과·4)

2022년 3월, 드디어 대학교의 마지막인 4학년이 시작됐다. 내가 학교에 있던 3년이라는 시간은 매년 새로운 출발이었다.

2019년, 코로나가 없었던 그때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대학교라는 곳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뵈었기에 두려움이 좀 더 컸다. 출발은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 상황에 불안해하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부딪쳐보기로 했다. 먼저 1학년 대표에 출마했다. '떨어지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례시아 출발이 싫었다.

학년 대표가 된 나는 수줍음이 많아 '잘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내 곁에 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수줍음이 가득한 목소리보다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더 많이 났던 것 같다. 그리고 연구회에도 가입했다. '광고페인'이라는 연구회에서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드디어 내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연구회에서 기획서 공모전도 나갈 수 있었다. 지금 그 기획서를 열기도 두려울 정도로 아찔하지만, 그때 기획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사 및 수정 등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다음 해에 있었던 진보 과제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때의 출발은 지금 생각해보면 독특하고 잊었던 것 같다. 출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무서워서 휴학을 생

각했던 것 같다. 드디어 전공수업을 들으려 하고 학업과 편지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기대했지만, 거의 모든 수업이 비대면이었다. 대학 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구미가 분기인 나는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낯답도 잘 수 있고 좋았다. 하지만 대학교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줌으로 다 같이 모여 수다를 떨기도 했고, 파티를 열기도 했다. 각자 먹고 싶은 안주와 술을 가져와서 카메라에 대고 건배를 외쳤다. 다행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실습 과목 몇 개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고 전공 지식도 쌓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2020년이 월레벌떡 지나가고 2021년이 시작됐다. '내가 3학년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20년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갔던 것 같다. 제대로 배운 것도, 얻은 것도 없는데 2021년이라니...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2021년은 정말 자신이 없었다.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인 광고영상 제작 수업은 촬영 수업을 듣지 않아 구도 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체를 몰랐던 나에게겐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내 아이디어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무거운 카메라는 만지마자 망가뜨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같은 팀이었던 동기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무서웠던 촬영이 재미있게 다가왔다. 그리고 2학기 전공필수 과목이었던 IFSI 수업 또한 너무 무서웠다. 게다가

팀장을 맡게 되어 부담은 두 배가 넘었다. 학교의 과제가 아닌, 기업을 돕는 수업이기 때문에 매일 손에 땀을 쥐고 지냈던 것 같다. 기업에 직접 연락하고 컨택한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를 들고 미팅도 하고 프로젝트 진행도 했다. 글로 쓰니 대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은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고 스트레스로 우는 날도 많았다. 출발이 잘못됐나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2021년은 내가 열심히 출발했던 해였다. 학교에서 학우들을 위한 캠퍼스타터덕 기획하고 진행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일해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방향 때는 현장실습으로 서울로 다녀왔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매년 새롭게 출발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출발이 아니어도 출발이란 꼭 해야 하는 것이었다. 매년 정도로 2020년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갔던 것 같다. 제대로 배운 것도, 얻은 것도 없는데 2021년이라니...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2021년은 정말 자신이 없었다.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인 광고영상 제작 수업은 촬영 수업을 듣지 않아 구도 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체를 몰랐던 나에게겐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내 아이디어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무거운 카메라는 만지마자 망가뜨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같은 팀이었던 동기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무서웠던 촬영이 재미있게 다가왔다.

그리고 2학기 전공필수 과목이었던 IFSI 수업 또한 너무 무서웠다. 게다가 팀장을 맡게 되어 부담은 두 배가 넘었다. 학교의 과제가 아닌, 기업을 돕는 수업이기 때문에 매일 손에 땀을 쥐고 지냈던 것 같다. 기업에 직접 연락하고 컨택한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를 들고 미팅도 하고 프로젝트 진행도 했다. 글로 쓰니 대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은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고 스트레스로 우는 날도 많았다. 출발이 잘못됐나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2021년은 내가 열심히 출발했던 해였다. 학교에서 학우들을 위한 캠퍼스타터덕 기획하고 진행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일해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방향 때는 현장실습으로 서울로 다녀왔다.

이달의 명언

자신의 능력욕 믿고 끝까지 굳세게 먹고 나가라.
-로작인 카터

자신용 내 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박타자르 그라시안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프레디 머큐리

네 컷 만화

새로운 시작



동서인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입니다. (-)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누구나 희망이나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거나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신빙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살아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꿈이란 과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정도로 치부될 만한 것일까?', '절없는 어떤 시절의 놀이거리에 불과한 것일까?'

사설

우리는 메달이 아닌 선수를 응원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초반, 각종 경기에서 잇따른 실격 판정에 전국민의 실망감이 각종 SNS와 댓글에서 드러났다.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의 반응과 크게 비교될 정도였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응원의 목소리는 지난해 외쳤던 응원을 뛰어넘는 정도로 커졌다. 더 이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생각하며 선수를 응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 올림픽 메달 순위에 신경 쓰지 않는 이도 적지 않다. 메달 색깔이나 경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든 결과다. 우리는 점점 메달보다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1등이 아니면 주목하지 않았다. 은메달을 따면 선수가 비난받던 과거와는 이별했다. 금메달을 외치던 문화에서 메달을 외치던 문화로 이어져 이제는 선수의 이름을 외치는 문화로 변화했다. 도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대화를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다. 올림픽 관련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또한 응원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은 인기 종목 선수나 어린 선수들에게만 쏠리지 않는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도 응원이 잇따랐다. 이러한 응원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이루어졌던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역대 김수현 선수가 있다. '메달과 그 색으로는 잠재력을 평가할 순 없어요. 이미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크고 빛나는 도전이었기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팬이 역대 김수현 선수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다. 김수현 선수는 지난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역도 국가대표 선수로, '포기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140kg의 역도를 힘차게 들어올린 역대 선수다. 부자가 올린 후에도 수초 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3명의 심판 중 2명이 팔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실패' 판정을 했다. 결국 김수현 선수는 메달을 받지 못하고 8위로 대회를 마감했지만, 팬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가득 담아 보냈다.

새로운 시작

사실 인간은 시작점에서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 데에 모르는 길을 가야 할 때인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인지 모르는 학문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혹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진 않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학문을 택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기대감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벗어날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은 실패와 '앞으로 잘해 보리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작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그저 정처 없이 접하는 길을 걷곤 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학문에 관하여는 수동적 태도로

대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생각했던 기대는 무너지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출발할 때 생기는 기대를 잘 키우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결정해야 하고, 둘째는 작은 성공들로 자신에게 증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그림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행동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변화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정체성이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되고 싶은 자기 정체성의 그림을 자기 마음 속에 그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4명의 미국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토니 로빈스가 좋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권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모

습이 가장 자랑스러운가? 먼저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의 이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에 집중해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장면을 떠올리고 그게 일어난 것처럼 그려 보라고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실력이 향상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연인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남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 등을 그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란 절대 가치를 위한 삶을 말합니다. 뇌 연구에 따르면, 뇌에는 모르핀보다 다섯 배나 강한 '뇌 내 모르핀'을 생성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뇌 내 모르핀은 오로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질 때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이나 섹스 등 육체적 쾌감을 주는 모르핀 성분은 금세 격감해 오히려 허탈감과 불쾌감을 주지만,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즐거움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자신을 스스로 고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가치에 준한 꿈, 일생 끝까지 기대와 열정으로 살도록 평생을 가슴 뛰게 할 그 꿈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를 머리와 마음속에 계속 반복하여 심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의 그림을 소유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태도와 행동에도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처진 어깨가 펴지고, 몸이 곧게 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니스프로가 20% 증가하고 스프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22%가 감소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려고 하지 않던 새로운 일을 할 가능성이 33%가 증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말할 수밖에 없다." (현대어성경, 잠언 29: 18)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새로운 시작의 3월
기적 같은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대학생 재능기부 연합봉사단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안내
대상: 2022년 2월 28일 ~ 3월 9일
기간: 2022년 3월 11(금) ~ 15(화)
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활동안내
1. 자원봉사 활동
2. 자원봉사자 교육
3. 자원봉사자 관리
4. 자원봉사자 평가

참여방법
1. 신청서 작성
2. 면접
3. 자원봉사 활동

- 2022년 대학생 재능기부 연합봉사단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 접수기간: ~2021. 3. 09(수)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

가족친화 환경조성 슬로건 공모전

2022. 2. 24(화) ~ 3. 11(금)

주최: 한국여성가족재단

대상: 전국 19세 이상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슬로건

대상: 전국 19세 이상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슬로건

- 가족친화 환경조성 슬로건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03. 11(금)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문학/글/시나리오, 네이밍/슬로건

우체국 변화... 국민 상상력을 더하다
우체국 신사업/공익실천사업 아이디어 공모

2022. 2. 24(화) ~ 3. 11(금)

주최: 우체국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우체국 신사업/공익실천사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03. 11(금)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2022년 민간 과학문화진흥 지원사업

2022년 우리 동네 과학문화 100

주최: 한국연구재단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2022 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 우리동네 과학 클럽 모집
- 접수기간: ~2022. 03. 13(일)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대외활동

2022 여성과총 청년기자단 3기 모집

주최: 여성가족부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2022 여성과총 청년기자단 3기 모집
- 접수기간: ~2022. 03. 14(월)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제3회 시민행복 부산시내버스 제3회 시민제안사업 공모

주최: 부산시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시민행복 부산시내버스 제3회 시민제안사업 공모
- 접수기간: ~2022. 03. 15(화)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인테리어 코믹·만화 스킷 콘테스트 2022

주최: CAPSULO PAINT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인테리어 코믹·만화 스킷 콘테스트 2022
- 접수기간: ~2022. 03. 15(화)
- 응모대상: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웹툰, 웹/모바일/IT, 예체능/미술/음악, 해외

소통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주최: 한국여성가족재단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제8회 소통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 접수기간: ~2022. 03. 15(화)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

2022 KF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공모

주최: 한국국제협력단(KF)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2022 KF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공모
- 접수기간: ~2021. 03. 18(금)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웹/모바일/IT, 예체능/미술/음악, 대외활동/서포터즈

WELCOME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단 모집

주최: 자살예방지원사업추진위원회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2022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단 서포터즈 모집
- 접수기간: ~2021. 03. 20(일)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UCC 공모

주최: 부산광역시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UCC 공모 포스터
- 접수기간: ~2022. 03. 31(목)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비온뒤 100만 구독자 달성 기념 공모전

주최: 비온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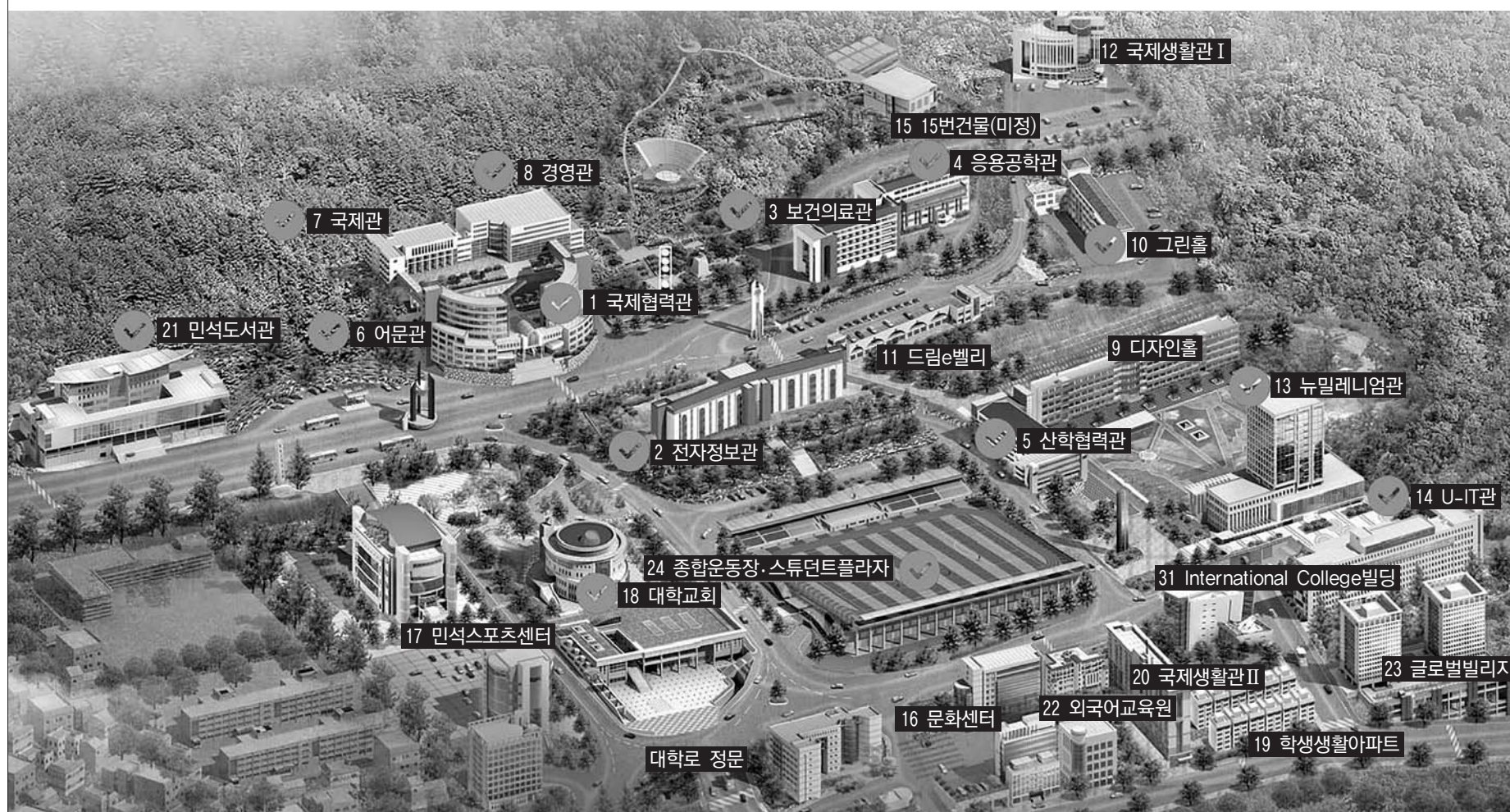
대상: 전국 국민

접수기간: 2022. 2. 24(화) ~ 3. 11(금)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웹/모바일/IT, 과학/공학

- 비온뒤 100만 구독자 달성 기념 공모전
- 접수기간: ~2022. 03. 31(목)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대학신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N1	국제협력관	N10	그린홀
N2	전자정보관	N13	뉴밀레니엄관
N3	보건의료관	N14	U-IT관
N4	응용공학과	N18	대학교회
N6	어문관	N21	민석도서관, 열람실
N7	국제관	N24	스튜던트플라자
N8	경영관		

* 대학신문은 각 위치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DSU 동서대 대학신문사

동서대신문사 ▼

|수습기자 모집 광고|

수습기자 모집 일정

- 일반기자(편입/복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누구나 가능)
- 객원기자(기자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사정으로 인해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재학생 누구나 환영)
- 동서대 신문사에 관심 있는 동서인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 : 3월 7일~3월 20일까지
동서대 홈페이지 모집란에서 동서대 수습기자 모집 안내 참조 후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 드립니다
- 문의 : Tel)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4915-8702(편집국장)

~ 3 월 20 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크ampus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